

## 안동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 가치와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탐색

### A Exploration on the Story Value and the Application as Local Cultural Contents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in Andong city

임지혜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창조산업연구소

Lim Jihye

Research Center for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

#### 요약

본 논문은 안동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으로 첫째, 안동 독립운동에 대한 강좌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둘째, 독립운동 전통마을의 테마파크화, 셋째, 지역독립운동 해설사 콘텐츠 개발, 넷째, 지역독립운동 콘텐츠의 축제화를 제안한다.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리는 안동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특히 근현대 독립운동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독립운동사의 고정관념을 넘어 민족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II.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와 가치

안동은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이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한국독립운동의 메카였다. 안동의 독립운동사는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안동 지역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특히 안동 사람들이 펼친 항일투쟁의 바탕에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독특한 전통마을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1]. 경술국치 후 안동유림은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안동유림은 만주로 망명할 때 문중 전체를, 특히 여성을 동반해 갔다. 늘 항일투쟁의 현장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또한 마을 공동체의 지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현대의 한국독립운동의 가치를 현대화 하는데 있어서 여성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III. 지역문화콘텐츠 활용의 가능성

안동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것은 안동 전통마을 공동체의 독립운동활동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의 가치를 현대화 하는 과정은 안동의 지역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주는 훌륭한 지역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첫째, 안동 독립운동에 대한 강좌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독립운동 관련한 지식 체계는 대부분 남성 중심적이며 영웅서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이야기로 초점을 달리 한다면, 지역공동체 가치 중심의 이야기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강의와 강좌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원화시키지 않고, 강좌형 체험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운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역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립운동 전통마을의 테마파크화를 제안한다. 과거 안동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전통마을들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답사의 방식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과거 마을의 이야기를 선형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전통마을이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다양한 이야기자원들을 유희적 요소로 활용하여 테마파크화 한다면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독립운동 해설사 콘텐츠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안동독립운동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해설사를 양성하여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관람객들에게 질 높은 해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운동유적 해설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리고 많은 지역시민들이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적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역독립 운동사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독립운동에 대한 여성 독립운동과 마을 공동체 차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지역독립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넷째, 지역독립운동 콘텐츠의 축제화를 제안한다. 지역시민들이 지역독립운동에 대한 스스로의 삶과 성장한 내용을 밖으로 표출하고 타인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축제 콘텐츠를 제안한다. 특히 안동의 전통 지역축제인 '안동민속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축제에서 안동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독립운동가들의 탈과 의상을 전시하고, 독립운동가와 전통마을 공동체의 숭고한 삶과 의미를 탈춤의 형식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탈을 만들어 형상화시킴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게 될 거성며, 가상의 가능성을 통해 인간 소외 혹은 비인간화가 아닌 새로운 인간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2].

#### IV. 결론

안동의 독립운동은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과 조금은 다른 특수성을 보여주는데, 숙종 말기 이후 유림들이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지향을 펼치면서 안동에는 지역 공동체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3]. 특히 안동의 여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안동의 여성들은 항일투쟁의 주춧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독립운동가들의 그림자로서 조명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과정에는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현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양한 방식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현대적인 가치로 재해석하여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상징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김화곤(2014). 독립운동의 큰 울림, 안동 전통마을, 예문서원.
- [2] Levy, P.(1988). 디지털 시대의 가상 현실, 전재연 역 (2002), 궁리.
- [3] 강윤정(2013). 사적史蹟에서 만나는 안동독립운동, 지식산업사.